

# 중세국어 원순성동화 현상에 대한 일고찰

– 동화주가 원순모음인 경우를 중심으로

석 주연\*

## 1.

국어 음운사에 있어서 원순성이라는 자질에 관련된 공시적·통시적 음운현상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주로 동화주가 원순모음인 경우에 나타나는 음운현상에 관심을 두되 15세기와 16세기의 문헌에 나타나는 자료상의 어형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한다.

일찍이 이승녕(1940) 등을 시작으로 ‘.’의 변천 및 소멸 등과 관련하여서도 원순성이라는 자질과 이로 인한 모음의 동화 및 이화 현상에는 많은 관심이 주어져 왔다. 최근에는 모음의 체계 문제와 관련하여, 또 방언음운론적 관심과 함께 이 원순성동화 현상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어 온 바 있다(이병근 1970; 남광우 1974; 최전승 1976; 이승재 1977; 백두현 1988).<sup>1)</sup>

---

\* 박사과정

1) 이러한 일련의 논의들 중 문헌에 나타난 원순성동화 현상을 집중적으로 다룬 것으로는 남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논의들은,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원순성동화 현상을 대부분 모음 체계와의 상관성 속에서 파악하거나 혹은 방언음운론적 관심에서 접근해 왔다. 따라서 동화 현상 자체의 방향성이나 규칙 적용 환경의 정밀화 등 동화 현상의 전반적 성격 구명에는 별로 관심이 집중되지 못했던 것 같다. 가령 원순모음이 동화주가 되는 원순성동화의 경우에 방언 자료의 몇몇 예를 제외한 대부분의 문헌 속의 자료들은, 개재 자음이 존재하지 않는 인접동화로서, 또 진행방향상 역행동화로서, 그 성격이 암암리에 규정되어 왔던 것 같다. 사실 동화의 성격 자체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논의 자체도 드물 편이다. 또 규칙 정밀화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덜 이루어져 온 뒷으로, 환경상 원순성동화로 볼 수 없는 많은 예들이 원순성동화로 오인되어 오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15~16세기의 정음 자료에서 개재자음이 존재하는 원순성동화의 많은 예들을 찾아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개재자음의 성격이 현대의 방언 자료들에서 보이는 원순성동화를 반영한 예들과는 달리 비교적 일정한 경향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화의 진행방향 면에 있어서도 역행동화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순행동화에 의한 예들도 상당히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15~16세기의 문헌에 나타나는, 원순모음이 동화주가 되는 원순성동화에 있어서의 개재자음 여부와 그 성격 및 동화의 진행방향 등에 주목하여 논의를 진행시키게 될 것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논의에 바탕을 두고 원순성동화 규칙의 정밀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그 결과로서 표면상 원순성동화를 거친 어형으로 오인되기 쉬운 어형들을 진정한 원순성동화를 입은 어형과 엄격히 구분해 보는 작업도 시도해 보게 될 것이다.

---

광우(1974), 최전승(1976) 등이 있다. 특히 최전승(1976)은 다양한 자료 취합과 함께  $\beta > w$  이후 비원순모음이 원순성 자질에 의하여 동화를 경험하고 이어 이화 작용에 의하여 비원순화하는 일련의 계기적 음운변화의 예들을 소개하고 그 과정의 규칙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2.

원순모음에 의한 원순성동화는 어떤 한 음절에 존재하는 원순모음의 원순성이라는 자질로 인하여 다른 음절의 비원순모음이 원순성 자질을 획득하여 원순모음화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의무적 규칙이 아니라 상당히 수의성을 띠는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 문헌상으로는, 15~16세기에 걸쳐 원순성동화를 입지 않은 어형과 원순모음화를 입은 어형이 공존하는 양상을 보인다(최전승 1975). 즉 어형에 있어, 규칙의 적용을 받은 개신형과 규칙의 적용을 받기 전의 형태를 반영하는 구형의 어형이 함께 문헌상에 존재하는 것이다.

중세국어 시기의 문헌에 등장하는, 원순모음을 동화주로 하는 원순성동화를 입은 어형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sup>2)</sup>

- |                |              |
|----------------|--------------|
| (1) ㄱ. 그율다~구율다 | ㄴ. 드위뻬다~두위뻬다 |
| ㄷ. 즈율다~조율다     | ㄹ. 득외다~도외다   |
| ㅁ. 김스위다~김수위다   | ㅂ. 오율다~오율다   |
| <br>           |              |
| (2) ㄱ. ㄎ외~고외   | ㄴ. ㄋ외야~노외야   |
| ㄷ. ㅎ을~호을       | ㄹ. 그위~구위     |
| ㅁ. ㄔ을~고을       | ㅂ. ㄔ오다~고오다   |
| <br>           |              |
| (3) 어둡다~어둡다    |              |
| <br>           |              |
| (4) ㄱ. 도르뻬~도로뻬 | ㄴ. 노르~노로     |

2) 본격적인 논의를 전개하기에 앞서 우리의 논의 범위를 좀더 구체적으로 한정시키는 것이 좋을 듯하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의 관심사는 문헌상에 나타나는, 모음이 동화주가 되는 원순성 동화이다. 따라서 자음이 동화주가 되는 '모기>모피>모귀~모구'의 변화 과정 등을 전제한 현대국어의 방언자료와 '말숨(<말숨>)', '즈모(<즈므>)', '촘(<촘>)' 등은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다. 또한 원순모음에 의해 원순성 동화를 겪은 일련의 어사들은 다시 수의적으로 이화 과정을 겪기도 하는데(최전승 1975), 이와 같은 이화 과정에 대한 논의도 우리의 논의에서는 제외될 것이다.

ㄷ, 빙로~甁로  
ㅁ, ㅈ?로~ㅈ고로

ㄹ, 보야호로~보야호로

(5) ㄱ. 드록~도록  
ㄴ. -르외- ~-로외-

ㄷ. 으로~오로  
ㄹ. -드외- ~-도외-

(1)의 예는 원순성동화가 적용된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 후행하는 원순모음에 의하여 앞 음절의 비원순모음이 원순성을 띠게 된다. 형태소 내부에서의 동화를 보여 주며 모두 인접·역행 동화의 성격을 띤다. 그러나 (1)의 예는 좀 다른 양상을 보여 준다. 즉 동화의 진행방향상 순행동화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순행동화의 성격을 띠는 예들은 이것 외에 또 있다. 피동화주가 동화주보다 후행하는 (4ㄱ, ㄴ)의 예들도 순행동화의 모습을 보여 준다. 따라서 중세국어 시기에 있어서 원순모음이 동화주가 되는 원순성동화는 동화의 진행방향의 면에 있어서 역행적 방향뿐만 아니라 순행적 방향도 보여 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순행동화의 예들은 역행동화의 예들보다 훨씬 적은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아마도 중세국어의 모음 연결에 있어서 일정한 경향이 존재하기 때문인 듯하다. 즉 중세국어 어사들의 모음연결 구조가 ‘비원순모음+오, 우(원순모음)’ 구조보다는 ‘오, 우(원순모음)+비원순모음’의 구조가 더 적다는 구조적 사실(김종규 1989)과 관련될 수 있을 듯하다.

한편, (1), (2)의 예들은 대부분 표면상 동화주와 피동화주 사이에 개재자음이 존재하지 않는 인접동화의 모습을 띤다. 그러나 (4)와 (5)의 예는 이러한 경향과 상치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즉 동화주인 ‘오, 우’모음과 피동화주 모음사이에는 일정한 자음이 개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 (5)의 예들은 모두 형태소 내부에서의 원순성동화를 허용하면서 대부분이 ‘ㄹ’이라는 자음을 동화주와 피동화주 사이에 개재시키고 있음<sup>3)</sup>을 보여 준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개재 자음이 있는 경우 모두 일정하게 ‘ㄹ’이라는 음을 개재시키고 있는 것을 단순한 우연의 소치로 돌리기는 어려울 듯하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여기서 우리는 ‘ㄹ’이라는 음의 성격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ㄹ’은 자

3) 김주필(1993)과 고영근(1995)에서도 동화시 개재자음이 ‘ㄹ’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음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consonant], [+vocalic]의 자질을 공유하는 모음적 성격이 강한 자음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중세국어 시기의 ‘ㄹ’은 근대국어나 현대국어에서의 음가보다 그 모음적 성격이 더 강한 자음이었음이 알려져 있다.<sup>4)</sup> 그런데 원순성동화를 입는 환경에서의 유음의 위치는 모음과 모음 사이이고 이 때 원순모음과 대를 이루는 다른 음절의 비원순모음의 경우는 모음 강도가 약한 ‘.’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중세국어 당시 모음 강도가 약했던 ‘.’음과 상대적으로 모음적 성격이 강하고 자음적 성격이 거의 없었던 ‘ㄹ’음은, 동화주가 되는 음절의 원순성 자질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데에 아무런 제지의 힘을 발휘할 수 없었던 듯하다. 중세국어에서 다른 자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는 모음적 성격이 강력했던 ‘ㄹ’음의 개재는, 결과적으로는 모음 강도가 약한 ‘.’음의 원순모음으로의 동화를 용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ㄹ’음의 개재가 여타 다른 자음의 개재 때보다는 원순성동화를 한결 용이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어쩌면 개재자음 ‘ㄹ’음이 동화주 음절의 w와 공유하는 [+high], [+vocalic], [+sonorant], [+voiced]의 자질이 이러한 원순성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데에 기여했을지도 모른다. 위의 예 중 (4), (5)의 예는 이러한 모습의 전형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일찍이 최전승(1975)에서는  $\beta > w$ 에 의한 원순성 자질에 의하여 일련의 어사들에서 동화 및 이화 작용이 일어남을 강조하여 일련의 동화 및 이화 작용이 나타나는 몇몇 어사들은 문증되지 않더라도 15세기 이전의 시기 정도에 崩을 가졌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up>5)</sup> 원순성으로 인한 동화 및 이화 현상이 일어나는 모든 어사들을 그렇게 볼 수 있을지는 문증되지 않는 자료들에 관한 논의

4) 김동언(1980)은 중세국어에서 ‘ㄹ’의 모음적 성격이 보다 강력하였음에 주목하여 반모음과 가까운 것으로 추정하고 특히 약간의 마찰성을 띤 점을 중시해 [h]와 같은 계열을 이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박기영(1995)에서도 중세국어의 ‘ㄱ’탈락 현상을 중심으로 유음‘ㄹ’이 반모음, 전설고모음 ‘이’와 자연부류를 이루고 있는지의 여부를 살피므로써 ‘ㄹ’이 중세국어 시기에 [+high, -back]으로 표시될 수 있으며 유음이 선행한 어간말 자음군이 비음이 선행한 어간말자음군보다 더 나중에 자음군단순화규칙을 적용받는 것도 중세국어에서의 유음의 모음적 성격이 현대국어에서보다 강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한 바 있다.

5) 최전승(1975)에서는 15세기나 그 이전 시기에 崩을 가졌었다고 추정되는 어사로 다음과 같은 예들을 들고 있다. ‘고을’, ‘드외-’, ‘호오아’, ‘느외’, ‘고을’ 등이 그것이다.

이기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다만 기원적으로 ㅂ을 가지고 있던 어사들이 모음이 연결되는 음절구조를 가지게 되고 그 모음 중 하나가 ㅂ이 변한 원순성을 가진 모음일 때 특히 원순성동화가 활발히 일어났다는 것은 사실인 듯하다.

그런데 이 ㅂ을 가졌던 어사들이 원순성동화를 겪게 되는 경우 개재자음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된다. 가령 (1ㄷ, ㄹ) 등과 같은 예들은 일찍이 ㅂ을 가졌던 어사인데 이들 어사들에서 이러한 ㅂ의 변화가 난순히  $\beta > w$ 의 변화를 의미 하느냐는 문제가 있게 된다. 김경아(1991)에서는 이를 환경에서의 ㅂ의 변화를  $\beta > \gamma w$ ,  $\beta > fw$  정도로 추정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입장은 받아들인다면 '수울(<수불>'의 ○은 어느 정도 자음의 음가를 가졌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조울다~조울다(\*조불다)'의 ○의 경우에도 같은 논리를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ㅂ의 변화 이후의 이러한 ○을 자음적 요소로 상정한다면 원순성동화에 있어 'ㄹ'음과는 또 다른 종류의 개재자음적 요소를 허용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기원적으로 ㅂ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원래부터 원순모음을 지니고 있었다고 추정되는 어사의 경우에는 개재자음이 문제시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ㅂ을 선행시켰던 모음이 ㅂ으로 인해 원순성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다른 음절의 비원순모음을 원순화시키는 경우와, 'ㄹ'이라는 모음을 반드시 개재시킨 상태에서 원순성동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개재자음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는 것이다. 물론 전자의 개재자음과 후자의 개재자음 'ㄹ'음이 자질적으로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도 문제시될 것이다. 만약 두 개재자음적 요소가 자질적으로 어떤 공통자질로 인한 상관성을 보일 경우 원순성동화에 대한 규칙의 정밀화는 한층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규정될 수 있음이 분명하지만 현재로서는 ' $\gamma w$ ' 등이 어떠한 음가를 지니는지 잘 알 수가 없을뿐더러 ' $\beta > \gamma w$ ' 등의 변화의 일반성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양 개재자음 사이의 정확한 상관성을 추출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우리는 'ㄹ'음의 마찰성(김동언 1980)과 ' $\gamma w$ '음의 ' $\gamma$ ' 부분의 마찰적 성격이 상관성이 있으리라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또한 여기에서는 중세국어 시기에, 원순모음이 동화주가 되는 원순성동화는 개재자음이 없는 경우, 개재자음이 'ㄹ'인 경우, 개재자음이 ㅂ의 변화로 인한 자음적 요

소일 경우의 세 가지 유형으로 일어나는 경향이 있었음을 짐작적으로 밝혀 두기로 한다.

다음으로 (3)의 예를 살펴보자. 우리에게 (3)의 예는 매우 특이한 존재이다. 외면적으로 가령 (3)의 ‘어둡다~어둡다’에는 동화주인 원순모음의 모습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어듭-’의 활용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어듭-’은 ‘어드우며/어드운/어두워/어둡고/어둡디’등의 활용형을 보인다. 이 때 ‘어드우며/어드운’등의 활용 형태가 원순성동화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환경임은 물론이다. 따라서 이들은 ‘어두우니/어두운’과 같은 활용형을 가지게 되고 이에 유추되어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경우에도 ‘어듭-’으로 어간 형이 재구조화를 입게 된다.<sup>6)</sup> 이와 같은 현상은 패러다임의 규칙화, 유추적 평준화라는 현상 등과 동궤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련의 원순성동화의 결과로 이형태 간의 형태상의 차이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줄어드는 방향으로 어간이 재구조화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고영근(1995)에서 동화 현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예로 든 ‘젖습거니와’, ‘받좁는’ 등의 어형도 비슷한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젖습거니와’의 경우, ‘젖스온’, ‘젖스오니’와 같은 활용형에서 끝음절의 ‘그’에 의해 앞음절의 ‘.’가 ‘그’로 동화되었고 결국 전체 활용형에 이와 같은 현상이 유추되어 ‘젖습거니와’와 같은 어형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예들도 원순성동화 현상과 관련하여 매우 흥미로운 예가 아닐 수 없다.

- |                              |                          |
|------------------------------|--------------------------|
| (6) 그. 득토아~득토와<br>ㄷ. 비호아~비호와 | ㄴ. 나소아~나소와<br>ㄹ. 모도아~모도와 |
|------------------------------|--------------------------|

#### (7) 도토다(두시중 25:28)

(6)과 같은 자료와 관련하여 이현희(1994)에서는 중세국어 시기에 ‘모도아~모도와’, ‘뷔엿고~부엿고’, ‘귀예~구예’와 같이 앞·뒤에 ‘그’나 ‘ㅣ’ 음이 올 경우, ‘그’나 ‘ㅣ’가 표기상으로 생략되거나 삽입되는 현상이 종종 있음을 지적한 바 있

6) 이것을 최전승(1975)에서는 ‘동화작용의 유추, 혹은 구조적 압력’의 탓으로 설명한 바 있다.

다. 그런데 이러한 견해에 관한 음운론적 해석, 특히 우리의 관심사와 관련있는 ‘그’에 관련한 음운론적 해석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첫번째 가능성은 (6)을 앞 음절의 원순모음에 의해 원순성동화를 입은 형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두번째 가능성은 (6)과 같은 예들을 활음(w) 삽입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이것을 활음 삽입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일단, (6)을 원순성동화로 이해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상정했던 원순성동화의 모습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중세국어 시기, 활음 w의 삽입 현상은, 모음과 모음의 연결시 glide化, 즉 w계 이중모음의 출현을 제약하는 음절구조제약과, 모음연결제약을 다 만족시키기 위해 'w'가 수의적으로 삽입되는 현상을 지칭한다.<sup>7)</sup> (6)의 예는 이와 같은 w삽입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환경을 갖추었으며 그 수의적인 교체형도 이와 같은 생각을 지지해 주는 듯하다. 따라서 (6)의 예는 표면적으로는 원순성동화를 입은 듯한 모습을 가졌지만 원순성동화와는 다른 기제로서 그 어형이 설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7)의 예는 우리에게 또다른 의구심을 일으킨다. 표면상 (7)은 ‘드토다’의 2음 절 모음에 의해 1음절모음인 ‘.’가 원순성동화를 입은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7)과 같은 자료는 그렇게 해석되기 어려울 듯하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근거한다. 우선 ‘도토다’의 어형이 출현하는 것이 ‘.’의 표기가 혼란하였던 근대국어 시기라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밝혔던 중세국어 시기의, 원순모음을 동화주로 하는 원순성동화의 일반적 모습이라고 해석되기 어려운 점을 보여 주는데 그것은 개재자음의 문제 때문이다. 즉 이 자료를 원순성동화로 해석하게 된다면 개재자음을 ‘트’으로 상정해야 하는데 개재자음이 없는 경우와 개재자음이 있더라도 ‘ㄹ’음 혹은 ㅂ이 변화한 모종의 자음적 요소를 개재자음으로 하는 원순성동화의 경향을 상정했던 우리의 논의로서는 이 자료를 원순성동화의 예로서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물론 앞에서도 밝혔듯

7) 김종규(1989)에서는 w삽입에 관한 조건을 명시하고 이러한 삽입규칙의 출현시기를 15세기 말 정도로 추정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활음 삽입 현상은 개음절로 끝나는 용언 어간과 ‘아/어’ 계어미와의 결합시 수의적으로 일어남을 그 특징으로 한다.

이 이것이 근대국어 시기의 어형이라는 점은 이와 같은 생각을 더욱 공고하게 해 준다.<sup>8)</sup>

우리는 지금까지 15~16세기를 그 적용 연대로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를 중심으로 원순성동화 현상을 살펴보았는데 이 규칙이 필수적이기보다는 수의성을 떠되었던 규칙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원순성동화가 적용될 환경에 있는 어사도 경우에 따라서는 원순성동화를 겪지 않는 예를 종종 목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스외'와 같은 부사는 2음절이 원순모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개재자음이 없는 환경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제1음절의 '.'가 원순성동화를 입은 모습을 보여 주지 않음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sup>9)</sup>

8) 위의 어형이 표기가 정제되지 않았던 『두시언해』중간본에 나타난 어형이라는 점도 주목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이것은 '.'의 변화와 모종의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예는 '말숨'이 '말숨'(박번 상:14)과 같이 변화하는 예와 함께 우리에게 몇 가지 암시를 준다. 즉 두 예 모두 비어두에서의 '.->.'의 변화 양상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이것을 '.'의 변화 내지 비음운화와 관련된 우발적 현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단 '말숨'의 예는 후행하는 'ㅁ'에 의한 원순모음화일 가능성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송민(1986: 97)에서도 이와 같은 입장이 제시된 바 있는데 특히 '말숨'과 관련하여 같은 환경의 '사숨' 등이 '사숨'으로 변화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ㅁ'에 의한 원순성동화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리하여 '말숨'에서 보이는 '.'의 '그'로의 변화를 16세기와 17세기에 걸쳐 비어두음절에서 빈번하게 일어났던 '.->.'의 흐름에 휩쓸린 우발적 변화로 해석하였다. 그런데 (7)의 예는 이러한 비어두음절에서의 '.'->.'의 변화가 어두음절에서도 가능했음을 보여 주는 예로 해석될 수 있을 듯하다.

9) 한편, 본고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못한 '호시도소이다'와 같은 어형은 원순성동화의 논의와 관련하여 매우 주목할 만한 어형이다. 고영근(1981, 1995)는 김동법 형태소의 문체와 관련하여 이 어형이 순행적 모음동화형이라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으며 특히 고영근(1995)에서는 문헌자료 속의 모음동화형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제시되었다. 그런데 우리의 논의를 따른다면 (8)이 원순성동화형이라는 견해에 있어서 동화의 방향이 순행적이라는 것보다도 개재자음을 'ㅅ'인 원순성동화를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이 커다란 문제로 등장한다. 이에 관한 우리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는 고려시대 구결자료 안에 '호도소이다'형이 존재함을 주목할 수 있다(이승희 1996). *宛然無異 乃至于今 3 年六十弣 亦無有異 ㄻㄻ소 」*와 같은 예가 그것이다. '호도소이다'의 '호도소이다'로의 변화가 우발적 현상을 반영한 것인지 일정한 규칙을 반영한 것인지 아직 확실하게 말할 근거는 다소 부족하지만 만약 일정한 규칙을 반영한 어형이라면 고려시대 구결자료에서의 이러한 어형의 존재는 '호도소이다'와 '호도소이다'형 사이의 일정한 음운론적 동화 관계를 상정하게 하며 '호도소이다'가 '호도소이다'의 원순성동화형이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해 준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중세국어 시기의 자료에는 원순성동화를 반영하기 전 형태인

## 3.

우리는 지금까지 중세국어 문헌어에 나타나는, 모음을 동화주로 하는 원순성동화 현상에 대한 몇 가지 문제를 살펴보았다. 원순성동화와 관련하여 모음 체계와 방언 자료의 해석에 관심을 집중해 온 기존의 논의에서 벗어나 동화의 진행방향의 문제, 개재자음의 문제 등 동화의 성격 문제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중세국어 시기 모음을 동화주로 하는 원순성동화는 순행적 진행방향과 역행적 진행방향을 함께 보이지만 역행적 진행방향이 우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동화 현상은 개재자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즉 인접동화의 모습을 띠기도 하지만 개재자음이 존재하기도 하여 원격적 동화의 모습을 띠기도 함을 확인하였는데 이 때 개재자음으로 가능한 것은 'ㄹ'음과 'ㅂ'이 변한 일련의 자음적 요소일 것을 추정하였다. 특히 'ㄹ'음과 관련하여서는 'ㄹ'음이 개재자음으

---

'흐도스이다'형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흐도스이다'가 '흐도소이다'가 된 것이 15세기나 16세기에 일어난 일이라면 같은 시기 다른 원순성동화형이 상당 기간 항상 구형과 공존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처럼 '흐도소이다'형과 함께 '흐도스이다'형도 중세자료에 존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흐도스이다'형은 단 한 예도 나타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감동법 형태소를 포함한 어미구조체에서의 원순성동화의 적용연대가 15세기 이전이라는 생각을 가능하게 한다('흐도스이다'형이 나타난 기림사본 『능엄경』의 연대가 13~15세기 초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감동법 형태소를 포함한 어미구조체에서의 원순성동화의 연대도 이 시기 경이 아닌가 추정된다). 결국, 15~16세기에 존재하는 '흐도소이다'는 전대의 규칙을 반영한 어형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고려시대에 적용된 원순성동화의 반영형이 15~16세기에 전해 내려온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흐도소이다'는 일종의 전대 규칙의 화석을 담고 있는 어형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개재자음 'ㅅ'도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논의를 따른다면 15세기 이전에는 원순성동화의 적용 환경이 15세기나 16세기와는 달리 'ㅅ'이 개재자음으로 가능했던 환경이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ㅅ'을 개재자음으로 하여 감동법 형태소를 포함한 어미구조체에서 원순성동화가 일어났고 개신형과 구형이 공존하다가 15세기 이후로는 개신형만이 살아 남게 되었으며 또 원순성동화의 규칙 적용 환경도 변화를 입게 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흐도소이다'와 '흐도스이다' 중 개신형인 전자만이 살아 남은 이유는 순전히 화자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 생각된다. 우리는 이와 동궤의 현상으로 '드록'과 그것과 공존하였던 원순성동화형인 '도록' 중 일정한 시기 이후부터는 '도록'만이 문헌상에 나타났던 예를 상기해 볼 수 있다(이기문 1959).

로 가능하였던 배경을 ‘ㄹ’음의 음성적 속성과 관련지어 설명하려 하였다. 또 이러한 원순성동화의 환경에 대한 구명의 결과로서, 원순성동화로 오인되기 쉬운 예들과 진정한 원순성동화의 예들을 구분하면서 일련의 어형들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본고의 논의는 보다 많은 문제를 남기고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원순성동화와 관련한 동화의 방향과 개재자음의 문제는 ‘흐도소이다’와 같은 어형과 관련하여서도 더 깊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 어형과 관련하여 시간에 따른 규칙의 성격적 변화를 상정한 본고의 논의는 보다 많은 증거가 뒷받침될 때 확실한 타당성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ㅂ’이 변한 자음적 요소를 원순성동화의 개재자음적 요소로 상정하는 논의도 그것의 자질 문제 등이 좀더 본격적으로 다루어질 때 더욱 구체화되리라 생각되며 중세국어에서 보이는 일련의 원순성동화현상이, 현대국어 방언 자료에서 보이는 원순성동화와는 본질적으로 어떠한 성격상의 차이점을 보이는가 하는 점 등도 더 자세히 구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고영근(1995), <중세어의 동사형태부에 나타나는 모음동화>, 『국어사와 차  
자표기』(남풍현선생회갑기념논총), 태학사.
- 김경아(1991), <중세국어 후음에 대한 일고찰>, 『국어학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김완진선생회갑기념논총), 민음사.
- 김동언(1980), <국어유음에 대한 음운론적 연구>, 숭실대 석사논문.
- 김완진(1963), <국어 모음체계의 신고찰>, 『진단학보』 24.
- \_\_\_\_\_ (1975), <전라북도 방언 음운론의 연구방향 설정을 위하여>, 『어학』  
2(전북대).
- \_\_\_\_\_ (1978), <모음체계와 모음조화에 대한 반성>, 『어학연구』 14-2.
- 김종규(1989), <중세국어 모음의 연결체약과 음운현상>, 『국어연구』 90.

- 김주필(1993), <금강경삼가해>, 『국어사연구와 국어학의 연구』(안병희선생 회갑기념논총), 문학과지성사.
- 남광우(1974), <원순모음화 현상에 대한 연구>, 『국어학』 2.
- 박기영(1995), <국어 유음에 대한 통시론적 고찰>, 『국어연구』 131.
- 백두현(1988), <'으, 오, 으, 우'의 대립 관계와 원순모음화>, 『국어학』 17.
- 송 민(1986), <전기근대국어 음운론 연구>, 『국어학총서』 8, 탑출판사.
- 이기문(1959), 『16세기 국어의 연구』, 탑출판사.
- 이기문(1972), 『개정 국어사개설』, 탑출판사.
- 이병근(1970-71), <경기지역어의 모음체계와 비원순모음화>, 『동아문화』 9(서울대).
- \_\_\_\_\_ (1970-71), <19세기 후기 국어의 모음체계>, 『학술원논문집』 9.
- 이승녕(1940), <'으'音考>, 『진단학보』 12.
- 이승재(1977), <남부방언의 원순모음화와 모음체계>, 『관악어문연구』 2, 서울대 국문과.
- 이승희(1996), <중세국어 강동법 연구>, 『국어연구』 139.
- 이현희(1994), <두시인해 권 6, 7, 8, 9 강독자료>, 유인물.
- 최전승(1975), <중세국어의 이화작용에 의한 원순성 자질의 소실에 대하여>, 『국어연구』 33.